

아케노베 광산은 8세기경부터 1987년에 폐광될 때까지 조업되었다고 합니다. 아케노베에서 가장 많이 채굴된 광석은 구리와 주석으로한때는 일본 주석의 90%를 공급했으며, 주석 산출량은 일본 내 1위였습니다. 지금도 광맥을 확인할 수 있지만, 1980년대까지 엔고 등의 영향으로 달러에 의한 주석의 국제가격 저하가 멈추지 않는 시대를 맞이해 광산은 폐쇄되었습니다.

광산이 폐쇄되었을 때 아케노베 광산은 상부에 18층, 하부에 18층으로 총 36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총 550km에 걸친 갱도가 있었습니다. 하층부의 갱도는 의도적으로 수몰되었지만, 갱도 상층부의 일부는 가이드 투어를 위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광산은 1년 내내 섭씨 12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간장과 술의 숙성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산요하이 주조는 지역의 쌀과 물을 사용해 ‘센사쿠라(仙櫻)’라고 불리는 특별한 일본술을 빚고 있는데, 이 술은 광산 내부에 있는 숙성고 ‘메이주구라(明壽蔵)’에서 숙성됩니다.